

다산포럼

이승우



한 목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오랫동안 집을 지으며 살아온 늙은 목수는 어느 날 이제 일하는 걸 그만두고 여생을 즐기며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를 고용하고 있던 사장이 솜씨 좋은 기술자의 은퇴를 아쉬워하며 말한다.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하겠다.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만 지어 주고 떠나라. 목수는 승낙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이미 떠난 터에 일이 손에 잡힐 리 없었다. 그는 싸구려 자재를 쓰고 대충대충 일했다. 이른바 부실공사.

그의 일생에서 유일하게 불성실한 공사를 했지만 더 이상 목수로 살지 않겠다고 작정한 그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공사가 끝났을 때 사장이 그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집이다. 당신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아름다운 퇴장을 그리며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이다. 어디서 보았는지 들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떠올랐을까. 얼마 남지 않

은 이 정부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고 싶은 바람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정권 말기만 되면 이런 저런 추한 스캔들이 휘말려서 허둥거리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정부를 여러 번 겪었다. 레임덕 현상이 이유라고도 말한다. 정권 담당자들의 긴장감 실종이 레임덕 효과일 테니까 틀린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담당자들의 긴장감 실종이 레임덕을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은퇴를 앞둔 늙은 목수의 부실공사 같은, 마음이 떠나 있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법이다.

마지막 몇 분을 방심하여 패하는 축구 경기를 여러 차례 본다. 심지어 인저리 타임에 골이 터지기도 한다. 축구 해설가들은 종종 시작하고 5분, 끝나기 전 5분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종료 휘

목수 이야기

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충고도 들린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은 과정과 절차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일 것이다. "마지막만 좋으면 다 좋다"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인식 작용에는 묘한 데가 있어서, 중간 보다는 마지막 인상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인상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타인들에게 남겨질 마지막 인상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이 만들어졌을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마지막 무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안일함과 나태, 도덕적 해이, 긴장감의 실종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이 말 속에 숨어 있지 않나 싶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도 있다. 한 명의 타자만 잡으면 경기가 끝난다고 방심하다가 역전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년 병장을 향한 조연 속에서 마지막 순간의 방심으로 지난 2년여의 시간을 그르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의식도 없이 물러누운 남편의 손과 발

이 되어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는, 그 자신도 건강하지 않은 칠순의 할머니가 한 말이 자주 떠오른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의 육체적인 고단함과 정신의 피로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인데, 남편이 한을 가지고 떠나게 할 수는 없어서라고 했다. 힘들다고 남편과 살아온 한평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들었다. 그것은 남편의 삶에 대한 부정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기도 할 것이다.

목수는 마지막 한 채의 집을 대충 지어 범으로써 자신의 목수로서의 전 인생을 부정했다.

이것은 당신의 집이다. 하고 주인이 준 열쇠는 바로 그가 지은 집의 열쇠였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지은 집에서 산다.

지금 마지막 집을 짓는 사람은, 지금 짓는 집이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마지막 공을 던지는 사람은, 지금 던지는 공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므로, 참된 뜻에서, 마지막은 없다.

〈조선대 교수·소설가·다산연구소 제6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농협조합장 선거 탈·불법 뿌리뽑아야

농협조합장 선거의 탈·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5년 7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혼탁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곳곳에서 적발돼 탈법을 빚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제공으로 당선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재선선거에서마저 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협 내에서는 4년 임기의 조합장선거에 작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며 향응과 금품제공이 필수적이라는 못된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모범적으로 선거를 치른 농협도 없지 않다. 하지만,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법이 다양하다. 식사를 대접하거나 돈을 돌리고 집회를 하며 가정집을 방문, 지지를 당부하기도 한다. 조합 내에

서는 네 편, 내 편으로 울타리를 쌓고 서로 반목하며 본인의 직무를 뒤로 한 채 선거전에 뛰어들기도 한다.

누슨한 처벌규정이 혼탁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회계책임자도 일정 형량 이상 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화 되지만 조합장은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친구나 배우자를 시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도 본인과의 관련성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농협은 지금 백색간담에 서 있다. 농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조합장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조합장 선출은 조합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명에는 조합원이 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촌 발전은 물론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농협조합장 선거의 탈·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통합신당 대선 경선후보 비전 제시하라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흥행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16일 까지 4연전을 치른 제주, 울산, 충북, 강원도의 국민경선 투표율이 19.7%에 불과했다. 통합신당이 표명한 '완전 국민경선'이란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흥행에 실패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외부적 요인이다.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선 아까운 피랍사태로 주목을 끌지 못했고 본경선도 '신정아씨 파문'에 묻혀 있다. 경선 초반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한계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외부적 여건은 흥행실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창당과정에서부터 '도로 열린우리당'이란 비아냥을 들어야 했고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경선후보들이 '물표 동원'과 '보이지 않은 손' 등 치열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태의연한 정치로는 국민들에게 감

동을 줄 수 없다. 감동을 주지 못하면 대선 정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현재의 대선 예비후보 및 정당 지지율로는 통합신당의 패배는 거의 확실하다. 오죽하면 열린우리당을 해체하지 않았어도 이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을까.

통합신당 경선후보들은 오는 29일 광주·전남과 30일 부산·경남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노풍(盧鳳)'의 진원지였던 광주·전남 민심을 바탕으로 저마다 승리를 꿈꿔왔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지금의 무기력한 모습으로는 누가 본선에 진출해도 대선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경선후보들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경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20% 이하에 머물러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새로운 정치를 보여 주지 못하면 통합신당의 정권 창출은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임승호



최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주요 대학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고, 포드재단과 기타 미국의 대형신탁회사들도 사회자본을 기금 제공의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 세계은행은 중요한 연구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사회자본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회자본이란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서로간의 관계(network)가 얼마나 상호 신뢰할만하고, 협

독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한다.

국내에서도 과거 새마을운동 등 정부 주도의 사회운동에서 사회자본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그 결과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시민사회운동을 사회자본의 주요 실체로 간주한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조직들이 존재한다.

환경·도시·교통·소비자문제 등과 같은 공적문제들을 다루는 시민단체에서부터 수많은 사회복지기관들, 그리고

사회자본으로 눈 돌려야

조가 잡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 조직이나 단체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강하고 결속력이 높고 일에 대한 만족감은 높지만, 불만이나 부정행위는 줄어들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를 늘릴 수 있다.

사회자본은 시민사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시민사회의 도래는 사회자본의 한 가지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또 독재정권하에서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의 행동도 사회자본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정당성 있는 정권하에서는 개혁, 책임성과 대표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운동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

사적인 관심에서 출발한 동호회 조직까지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해 활동한다.

비록 사소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간섭없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이같이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역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확대 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자본으로 만들어야 할 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공동체임을 지원하고, 시민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속의해 친절하게 응답을 해줘야 한다.

이같은 응답은 지역발전을 위한 답론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자본이 되기 때문이다.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상임연구원〉



스라소니(시라소니)의 전설



스라소니(시라소니)라고 하면 예전 드라마에 등장하던 인물의 별명을 떠올리는 독자들이 무척 많을 것이다.

스라소니는 중형 고양이과의 동물 중 하나다. 귀 위로 솟아있는 특이하고도 멋진 삐침 털, 한 뼘 정도밖에 안되는 짧은 꼬리는 다른 고양이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호랑이, 표범에게는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쥐나 잡아먹는 일반 고양이와 비교해서도 안된다. 격이 다르다.

스라소니는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산다. 노루나 사슴 같은 먹잇감을 혼자 사냥해서 먹는다.

국내에서는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동물이 된 지 오래다. 6·25전쟁 이후로 남한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

위 사진은 다른 동물원에 외롭게 혼자 지내는 스라소니를 찍은 것이다.

이 스라소니를 보면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스라소니라는 별명을 가진 드라마 속 등장인물에 대한 강렬한 인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무섭고 사나워 보인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 사육사인 내가 본 첫 인상은 정말 품위있으면서 우아했다.

'야생에서 만났다면 한 동안 녀를 잃고 바라만 볼 것 같다'고 해도 될 정도다.

멸종될 정도로 잡아 죽인 이유도 '이 때문 아닐까'라는 상상을 했다. '이쁜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질투심' 때문일 것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hwnat@hanmail.net

불어·독어 교사가 단기연수 뒤 일어·중어 가르친다...

4년 전부터 7차 교육과정에서 시행되면서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의 선택권이 주어짐에 따라 불어·독어교사들의 대부분이 일본어나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고에서 제2외국어는 다양할수록 좋다.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 그들이 원하는 제2외국어를 배운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교원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일본어나 중국어 교사를 발령내어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불어나 독일어 교사들을 단기 부전공 연수나 복수전공 연수를 시켜 일본어나 중국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한 현

상이다.

솔직히 대학 4년을 배워도 현장에서 가르치가 쉽지 않은데 일본어나 중국어를 몇 개월이나 1년 정도 배워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정상적인 수업이 되고 효과가 날리 만무하다.

학생의 선택권도 좋지만 가르치는 교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단기연수로 교단에 서서 가르치려 하는 것,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교육부의 교육정책 탓이 아닌가.

장래를 내다보며 설계하고 실시해야 할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만 본다면 너무 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추석 틈틈 선거관련 금품·음식물 접대 받지 마시다

이번 추석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9일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자신을 알리려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법이 오래된 미풍양속까지 막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거법은 불우이웃돕기를 선거에 약용하는 경우만을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불우이웃에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선물·금품 등

을 제공하거나 자신을 지지호소·선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불우이웃돕기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를 요구하며 내미는 선물이나 음식물·금품 등을 거절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만 음성적인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공명선거의 파수꾼이 되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추석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한요택·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

無等鼓

최근 눈길을 끈 한 외신이 화제다. 바로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의 '한국 재벌 총수들은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한국 재벌들의 행태를 '휠체어 탈출'이라는 말로 신랄하게 비판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벌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회소를 기웠다.

게 운정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에 대한 지적이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 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고질적인 유전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한 따가운 질책이 아닐 수 없다.

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등장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어 폭력을 쓴 김승연 한화 회장이 휠체어에 탄 채 재판으로 법정에 등장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재벌공화국에 대한 세계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 부끄러움이 앞선다는 게 중론이다. 대기업은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 기업을 키웠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성장한 국민의 기업인 것이다. 그러나 경영이익은 사사로운 챙기기 바쁘고 문제가 불거지면 병원신세를 동정을 산다. 법원은 그게



그러면서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한창일 당시 미국으로 출국한 이경희 삼성 회장이 5개월만에 귀국하면서 휠체어를 탔고, 귀국 후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도 지난해 비자금 조성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당연한 공식이라도 되는 양 면죄부를 쥐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경영을 계속 하도록 해주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 같다"고 한 외신의 지적을 법원과 재벌은 진정 급심을 때다.

/김우석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경치부 2200-616	여론매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